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국 구제역 진단기관 정도관리 평가 결과 모두 '적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9개소와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37개소를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구제역 정도관리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도관리는 2023년 5월 충북(청주, 증평) 구제역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구제역 진단역량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혈청예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 가축방역기관 모두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 대해서는 구제역 의심축 발생 상황을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구제역 감염 및 백신접종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외 구제역 혈청예찰을 수행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의 양·음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5종 돼지 인플루엔자 감별 유전자진단법 상용화 성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021년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질병진단과가 (주)메디안디노스틱과 산업체공동연구를 통해 개선한 돼지 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키트의 정식 품목허가를 지난 10월 11일 취득했다. 돼지 인플루엔자, 특히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인수공통전염(감염)병인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아형)는 지난 2009년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여 14개월간 1만 9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기존 진단키트는 돼지 인플루엔자 여부 및 제2종 가축전염병인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아형)만 검출 가능한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키트로 2010년 개발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진단키트는 국내 유행하는 3가지 아형(H1N1, H1N2 및 H3N2)의 감별과 2016년 이후 중국에서 우점종으로 보고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Eurasian avian-like H1N1 유전형4 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 키트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3 아름달빛 한마당 축제」 물품 후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공동체적 가치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9월 22일 개막식을 올리는 「2023 아름달빛 한마당 축제」에 동참하였다. 「2023 아름달빛 한마당 축제」는 아름동 주민자치회·아름동상인협회·아름동행정복지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관내 지역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이틀간 걸쳐 주민참여형 문화행사, 주민자치프로그램, 프리마켓, 풍선아트쇼,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는 관내 지역 행사이다.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방역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차량용 선바이저·물티슈·마스크·마스크 스트랩·볼펜)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행사를 응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종 본부 직원들은 “물품후원을 통해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발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자원순화·나눔실현 물품기부 캠페인 추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나눔을 실현하는 물품기부 캠페인을 추진했다. 물품기부 캠페인은 지난 6월 세종본부 237점 기부에 이어, 8월 10일부터 40일 간 진행되었으며 위생방역본부 직원 311명이 참여해 총 3,407건의 물품을 수집하여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위생방역본부의 이번 물품기부 캠페인은 '모아두면 짐! 버리면 쓰레기! 나누면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집에서 잠자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모아 기부하였으며 이는 30년 소나무 66그루를 1년간 심는 탄소저감 효과와 함께 물품판매 수익을 통한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양계농협

20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비전선포식 개최



INVITATION

**한국양계농협 20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비전선포식에
초대합니다**

2023. 11.01. (수) 오전 11시
안성팜랜드 종합행사장


한국양계농협

[행사일정]


일시 : 2023. 11. 01.(수) 오전 11:00 ~
장소 : 안성팜랜드 종합행사장
[경기 안성시 송도읍 대신동길 28]

시간	내용
11:00 ~ 12:20	주요 행사 (창립2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
12:20 ~ 13:20	원시 오찬
13:20 ~ 13:45	트롯트 가수열전
13:45 ~ 15:05	양계인 한마음 노래자랑 (특별유예)
15:05 ~ 15:50	2부 축적공연 (인기가수 공연)
15:50 ~ 18:00	폐회

* 비전선포식 TV, 현장 체험가동 각종 시연은 별도
* 주일 특별으로 소규모 공연 2차로 14:00 ~ 15:00까지 진행합니다.



초청사 "김성"
(양계농협회장)
(대행: 양계인)



초청사 "김희건"
(양계농협회장)
(대행: 양계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은 오는 11월 1일 경기도 안성 소재 안성팜랜드 종합행사장에서 '20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한국양계농협 관계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양계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그려나가고자 합병 이래로 이루어진 변화와 성장을 기리는 동시에 조합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기념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며 양계 관련인들의 많은 참석을 독려했다.

(사)친환경축산협회

'여행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 대상작 '힐링타임' (김재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사)친환경축산협회(회장 이덕선)이 '2023 친환경축산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여행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여행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사진공모전'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 혹은 방목생태 축산 지정농장에서 촬영한 목장의 아름다운 경관 사진을 주제로 실시됐다.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달간 작품을 공모한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150여점의 사진 작품이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사진작품들은 사진 및 축산 전문가 5인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를 거쳐 25점의 우수작이 선정됐으며, 해당 우수작들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6주간 실시한 대국민 투표(2차 심사)를 거쳐 상위 8점의 수상작이 가려졌다. 대상은 심사위원 점수와 대국민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힐

링타임'(김재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평화로운 양'(장용식), '목장하경'(박혜란), 그리고 우수상은 '포근'(류준희), '양들의 식사시간'(이정희), '첫나들이'(권혁일), '가을을 담는 작가'(신동찬), '눈내리는 목장'(함창주)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작은 영상 및 기념물 제작 등 친환경 및 방목생태축산 교육·홍보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최근 농식품부와 (사)친환경축산협회가 개최한 '2023 에코팜 콘서트'에서 해당 수상작들의 기념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

도서지역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을 위한 '희망 나눔 한방의료' 서비스 실시



(사)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안병우·김삼주)는 2023년10월15일 일요일 (사)약침학회(회장 육태한) 굿닥터스나눔단과 함께 도서지역인 인천강화 옹진축협(조합장 송정수) 축산농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화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희망 나눔 한방의료 봉사를 펼쳤다. 금번 한방의료 봉사는 지난 7월 23일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약침학회 한의사 6명과 자원봉사단 30여 명이 함께하여 도서지역인 인천강화 소재 축산 농가와 주민들에게 한의약을 현대화한 신의료기술인 '약침'을 시술했다. 약침은 한방치료의 첨단 기법으로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가 진료와 약제까지 처방하여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향후 (사)약침학회와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축산물 지원, 축산업 인식 개선, 재난지역 긴급지원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대한영양사협회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는 10월 14일 영양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



회] 및 대국민 교육·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영양의 날’은 지난 2007년 우리나라 대표 영양관련 단체인 (사)대한영양사협회, (사)한국영양학회, (사)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가 공동으로 지정한 이후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균형된 영양섭취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시의 적절한 영양관련 주제를 정하여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영양의 날 정착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영양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영양사를 중심으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민영양은 영양사와 함께!”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여 국민의 영양·식생활 문제점과 개선책,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의 날 제도화 방안 및 주요 선진국의 대국민 영양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영양의 날 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농업박물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업박물관(관장 황수철)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원장 임정빈)과 농업생명과학의 가치 확산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10일 국립농업박물관(수원시 소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생명과학의 가치 확산을 위해 박물관 전시 및 콘텐츠 제작 협력, 국내외 농업생명과학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협력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약내용

은 ▲농업생명과학 관련 전시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협력 ▲농업생명과학의 기록, 홍보, 가치 전달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협력 ▲농업생명과학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상 상호 지원 협력이다. 한편,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미래 바이오 농업 등 다양한 농업생명과학 분야를 박물관에 접목해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등 상호 업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